

HOME > 학술

비뇨생식기 영상의학의 '살아있는 교과서'를 만들다

양영구 기자 | 승인 2025.11.21 06:01

[인터뷰] SNU-건전비뇨의학과의원 김승협 원장

SNU-건전비뇨의학과의원 김승협 원장

[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] "판독실에서 자주 찾아보면서 너덜너덜해 지는 책을 만들고 싶었다"

비뇨생식기 영상의학 분야 권위자인 SNU-건전비뇨의학과의원 김승협 원장이 20여 년간 이온 교과서 집필 작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. 이번에 출간된 'The KSUR TextBook'은 단순한 개정판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'살아있는 교과서'를 지향한다.

**10년마다 개정되는 책에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교과서로**

김 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'Radiology Illustrated' 시리즈를 통해 비뇨기 영상과 부인과 영상 분야 교과를 집필해왔다. 미국과 유럽 출판사를 거쳐 2판까지 발행된 교과서들은 현장에서 높은 활용도를 자랑했다.

2년 전 스프링거 출판사로부터 제안받은 3판은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이었다. 10년마다 판을 바꾸는 대신 챕터별로 나눠 필요한 부분만 수시로 업데이트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태였다.

김 원장은 "혼자서는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없다고 판단, 대한비뇨영상의학회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여 학회 회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"고 전했다.

The KSUR TextBook의 가장 큰 특징은 '그림'이 많은 책이라는 점이다. 영문 교과서 특성상 텍스트 중심보다는 영상 중심으로 구성했으며, 판독실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다양한 케이스를 담았다.

각 챕터는 핵심 내용을 1~2페이지로 간결하게 정리한 후 다양한 임상 이미지를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제시한다. 전형적인 케이스부터 비전형적인 케이스까지 체계적으로 배열, 판독 중 유사 소견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.

현재까지 전체 30개 챕터 중 13개가 스프링거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됐다. 하드카피 도서는 저자용과 도서관용으로 소량만 제작되며, 2026년 3월 출간 예정이다. 주요 접근 방식은 온라인이며, 대학이나 기관이 구독하면 소속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.

김 원장은 "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미지만으로는 실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. 같은 질환도 환자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가능한 다양한 변이를 보여주고자 했다"고 전했다.

학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집필 시스템 구축

이번 교과서의 또 다른 의미는 대한비뇨영상의학회가 공식 교과서로 인정했다는 점이다. 각 챕터를 학회 회원들이 분담해 집필했으며,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담당한다.

김 원장은 "1개 또는 2개 챕터를 맡은 집필자들이 해당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계속 업데이트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. 내가 빠지더라도 학회 차원에서 교과서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"라고 설명했다.

그에 따르면 사실 스프링거는 특정 국가의 학술단체 이름을 책 제목에 넣는 것을 주저했다. 유럽 단위 학회 교과서는 있었지만, 한 국가의 학회 교과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.

그러나 김 원장의 설득으로 The KSUR TextBook이라는 명칭이 확정됐다. 이는 한국 비뇨영상의학회의 학술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자, 향후 아시아 지역 영상의학 교육의 표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.

호두까기증후군 권위자로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

김 원장의 또 다른 열정은 호두까기증후군(Nutcracker Syndrome)이다.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모습을 목격해왔기 때문이다.

호두까기현상(Nutcracker Phenomenon)은 왼쪽 콩팥 정맥이 대동맥과 상장간동맥 사이에서 압박받는 해부학적 상황을 말한다. 이로 인해 혈뇨, 단백뇨, 옆구리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호두까기증후군으로 진단한다.

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인구의 30%는 호두까기현상을 보이고, 그 중 절반은 증상이 나타난다. 이처럼 흔한 질환이지만 미국에서는 희귀질환으로 등록돼 있다.

이에 김 원장은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, 호두까기증후군이 흔한 질환이라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. 이에 지난 달부터 월 1회 아시아 지역 비뇨영상 전문의들과 온라인 네트워크 미팅을 시작했다. 아시아, 특히 동남아시아에 호두까기증후군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.

이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호두까기증후군으로 미국 희귀질환 사이트에서 제외시키고, 흔한 질환으로 재분류하는 것이다.

김 원장은 "진단부터 치료까지 가이드라인을 확립하고 호두까기증후군이 희귀질환이 아닌 흔한 질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목표다"고 강조했다.



양영구 기자

